

光은 蓮花紋과 唐草紋이 둘러있고 身光에는 唐草縱帶와 周緣에는 火焰紋을 陽刻하였다. 佛前의 方形蓮花臺石 一個는 當代의 石燈材로 推定된다. 佛身高 一·二〇m 光背高 一·五五m 同幅 一·二二m

(2) 安城二竹面(竹山) 梅谷里 如來立像(註) 巨身の 立像으로서 頭部는 切斷되었고 臺座는 圓形이나 破壞되어 現在 地上에 仰臥되어 있다. 通肩의 法衣는 上半身에서 密集弧線을 보이고 兩膝部에서 同心弧線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新羅 金銅像의 形式과 매우 類似하다. 이 같은 模作의 手法는 各部에도 施行되고 있는데 造成의 年代는 高麗로 내려올 것으로 推定되는 바이다. 身高(足下의 圓柄까지) 三·八七六m

(3) 安城郡二竹(竹山) 面梅山里 石造菩薩立像 龍華殿이라고 額板이 걸려있는 四石柱上의 瓦葺高閣內에 奉安되어 있는 巨像으로서 一枚石으로 造成되어 있다. 頭上에는 有紋寶冠이 있고 다시 그 위에 長方形의 寶蓋가 얹혀 있다. 身部에는 衣紋이 淺刻되었고 右手는 胸前에 左手는 腹部에 들었으며 臺座는 分明하지 않다. 恩津 灌燭寺 石佛과 同系에 屬하는 石造巨像의 一例로 推定되는 바 그보다 작기는 하나 身部의 比例와 彫法은 서로 比較되어야 할 것이다. 이 石佛前의 佛卓上에는 大理石(李朝)의 座佛一軀가 있고 또 境內東方에 石佛座像(高麗)(頭缺)一軀가 있는 바 모두 最近에 出土된 것이라고 한다.

總高 五·八四八m, 身高 五·六九六m

(註) 同里에 現存하는 五層石塔 附近에서 石造菩薩頭部 一個가 發見되어 國立博物館에 運搬되었다.

(附) 安城邑內面과 寶蓋面에 걸친 飛鳳城內의 藥師庵에서 出土된 金銅如來立像은 圓形臺座를 갖고 있으며 通印通肩하였는데 新羅統初의 作品으로 보인다. 全高 六·六cm (國立博物館에 收藏)

## 安城郡의 石塔 (二)

申 榮 勳

十二面을 갖고 있는 安城郡에는 高麗時代의 石塔婆가 多數 遺存하는데 先 調査된 五個面에는 十二基가 있었다.

(1) 梅谷里 廢寺址 五層石塔① 總高 二〇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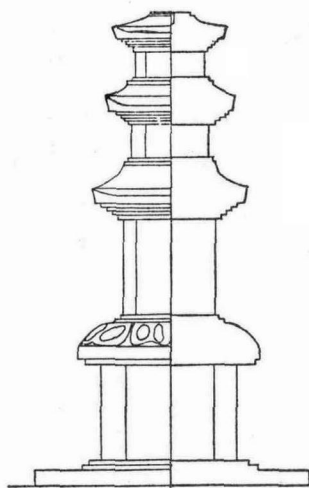
竹山邑에서 白岩으로 가는 大路邊에 幢竿支柱②가 있고 그의 北北東一三四尺 許에 南南東向한 이 탑이 中心線에서 北側으로 約 一尺 傾斜된 채서 있다. 四枚의 地臺石 위에 四枚의 中石이 서고 그 위에 甲石을 올려 놓았는데 그 上面端에 幅四·五寸의 홈을 들렸다. 또 塔身과 接續되는 部分에는 四隅柱를 받는 加工이 있으나 지금은 막 들어 맞지 않는다.

初層塔身은 側壁 一部에 隅柱를 高刻한 二枚石으로 左右壁을 삼고 그 사이에 폭이 좁은 돌을 끼었으며 南側 中央部에는 一邊 約 一·三尺 深三·五寸되는 方形 龕室을 파내었다. 屋蓋는 二級の 塔身받침, 屋蓋받침 五級이 있는 一石으로 되었는데 물흘림 曲線은 比較的 아름답다. 二層 以上の 塔身도 모두 一石이나 三層塔身과 屋蓋만은 龜裂로 因하여 二枚石으로 되어 있는 것같이 보인다.

基層中石 西側一枚가 넘어져서 内部를 볼 수 있는데 三重으로 次次을 내려



(2) 梅谷里三層石塔 S=30:1



은 長臺石이 甲石을 바치고 있다. 花崗岩製、高麗初期作品  
 (2) 梅谷里 三層石塔 總高 十二尺九寸 同里 二五二의 二號 尹在德氏宅 東側 田 中에 設는 이 탑은 四枚의 地臺石 위에

枚의 中石과 十六蓮瓣、副緣이 있는 一枚甲石의 單層基壇을 가졌다. 塔身은 隅柱 있는 一石으로 만들고 四級의 蓋石받침과 二段의 塔身받침이 있는 屋蓋石을 올려 놓고 있다. 相輪部는 缺失되었고 三層屋蓋 上部에 는 徑二·五寸 深三·五寸의 擦柱圓孔이 있다. 塔은 安定된 姿勢로 조그맣고 이쁘장하다. 花崗岩製 麗初作品

(3) 梅谷里 山麓三層石塔

飛鳳山 連峰山麓 (2)의 塔과 相距 一〇〇m 標高 一〇〇m 地點에 如來立像이 仰臥하고 있고 그 옆에 塔身 屋蓋石이 各二個 散在하고 있다. 石佛과 同代 同質의 花崗岩인데 크기로 보아 初層塔身 二層屋蓋 三層塔身과 同屋蓋로 推測된다. 塔身에는 隅柱가 있고 蓋石의 檐下部에는 後期에 나타나는 弧線의 模樣이 보인다. 高麗初—中期의 作品인 듯하다.

(4) 梅山里 五層石塔 總高約 七尺

同里三〇七番地 彌勒石像 前約 五米 地點에 像과 南北一直線上에 놓인 이 塔은 앞은 下層基壇과 높은 上層基壇을 갖았는데 甲石의 落水面에 中央이 婉曲한 曲線으로 隆起되어 있는 特異한 手法을 보이고 있다. 地臺石은 半埋沒되었는데 약간 흔들려진 감이 있다. 基壇과 初層塔身은 隅柱 二層以上의 塔身은 缺하고 있어 屋蓋만을 층층이 쌓았는데 四層屋蓋는 없고 五層屋蓋 밑에는 조그만 塔身이 같이 만들어졌다. 同 屋蓋石 上面에 一邊 一·五寸 深 一·五寸의 方形擦柱孔이 있다. 小規模이지만 하지만 아담한 짜임새였을 이 塔은 原位置에 놓였는 것으로 推定된다. 花

崗岩製 高麗中期—末期에 屬하는 作品인 듯하다.

註

- ① 東國輿地勝覽(卷八 竹山條) 飛鳳山下 奉業寺에는 「今只有石塔」이라는 記錄이 있는데 이곳 寺址石塔과 어떤 連關을 갖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 寺址에선 高麗初期 陶器破片과 後期 粉靑破片多數와 瓦當 初期立佛 菩薩頭部가 發見되고 있어 麗初나 그前부터 存續하던 寺刹이었을 것으로 暗示해주고 있다. 이 點은 奉業寺의 麗太祖 眞影安置云云의 記錄과 符合된다.
- ② 幢竿支柱 總高 一四尺、幅長邊 二·五五尺 短邊 一·六五尺 擦柱固定溝長 一·四五尺、幅四寸

資料

「七甲山長谷寺金堂重修記」

李殷昌

昨年 忠南青陽 長谷寺의 補修時 發見된 懸板文인 바 同寺 上大雄殿의 重修事實과 莊嚴을 傳하는 資料이다. (乾隆四十二年丁酉는 正祖六年 西紀一七七七年이다)

青陽縣東有七甲山之勝者也. 鵲川環其外水之佳者也. 山之南水之北有一洞壑深而幽. 其中有寺名曰長谷. 不知創於何代而至今業林稱之以普照國師之道場. 亦嘗三次重創於麗代則其闕劫多矣. 就中金堂最勝從古修戒僧所掛牌. 其法堂下鋪壁用石臺安石佛二座又有金佛三座安卓子. 東壁畫佛歷世既久宛然如昨傳稱吳道子所畫. 六間乃頽剝滲漏久爲山林之欠事矣. 何幸比丘與善男子聚財設契者有年. 餘乃謀旅衆曰、今契物錢若干穀若干此足以稱幣咸曰可. 遂以今年四月日始役易瓦之破者而新之則棟宇改觀咸曰事已完矣. 此不可無記. 於是略敘其顛末如右仍錄諸施主姓名於下方以爲不朽之圖云爾

乾隆肆拾二年丁酉四月日山之僧學演 識佛養

施主秩 (通政 朴茂春兩主以下僧俗名省略)